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상담자의 보고(report)를 중심으로*

이 동 훈 신 지 영[†] 김 유 진
성균관대학교

본 연구의 목적은 세월호 재난 발생 후 단원고 인근의 중·고등학교에 긴급 투입되어 5개월에서 1년여 동안 위기상담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보고를 통하여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을 알아보는 데 있다. 자료 수집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수집된 자료는 Krippendorff(2003)가 제안한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외상경험 특성으로 ‘신체’, ‘정서’, ‘인지 및 학업’, ‘행동 및 대인관계’ 4가지 차원의 13개 범주, 29개의 의미내용이 도출되었다. 신체차원은 ‘심적 고통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남’, ‘환시와 환청 등 지각 이상을 경험’ 2가지 범주, 정서차원은 ‘격해져 가는 슬픔과 분노’, ‘불안과 무서움, 우울’, ‘미안함과 죄책감’ 3가지 범주, 인지 및 학업차원은 ‘사람들도 싫어지고 학교 다니기도 싫어짐’, ‘세상에 대해 불신과 부정적인 시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 ‘인지기능의 저하와 학업의 중단’ 4가지 범주, 행동 및 대인관계차원은 ‘슬픔과 상실에 대응하는 방식’, ‘외현화 행동문제’, ‘또래관계 어려움’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기’ 4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세월호, 친구를 잃은 청소년, 외상경험, 질적연구, 상담자 보고

* 본 연구는 2015년도 국민안전처 인적재난안전기술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재난분석을 통한 심리 지원 모델링 개발’ 과제의 성과임 [NEMA-인적-2014-40]

† 교신저자: 신지영,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sjy337@naver.com

“우리가 미안하다”

세월호 안산 합동분향소 앞에 걸린 현수막의 문구이다. 2014년 세월호 재난은 3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장되는 모습을 몇 시간 동안이나 TV로 생중계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중 250명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참사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갖게 했다.

세월호 재난으로 인한 외상은 세월호에 탑승했던 단원고 희생자와 실종자의 유가족, 함께 세월호에 탔다가 생존해서 돌아온 교사, 학생과 그 가족에 한정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학교에 있었던 단원고 재학생들과 교사들, 지역사회 주민들, 단원고 희생자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동창과 고등학교 교우(交友), 유가족의 이웃이나 직장동료, 친인척 모두에게 외상은 동심원을 그리며 확산되었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전달된 정보와 이미지의 충격성 때문에 일반 국민들 또한 외상을 경험했다(김종업, 2014).

세월호 재난으로 많은 사람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원고 학생들과 나이가 비슷한 시기의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이 재난을 통해 겪었을 심리적 충격은 클 수 있다. 특히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들을 잃은 안산지역의 청소년들은 더욱 충격이 컸을 수 있다. 이러한 염려 때문에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세월호 재난 발생 후 “청소년들이 이차적 외상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호해 주어야 하며 아이들이 사건 관련 소식에 반복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한국경제, 2014, 4, 22).

청소년기에는 부모와의 애착이 감소하고 상

대적으로 또래친구와의 애착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통해서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또래친구가 정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조영주, 최해림, 2001; West, Rose, Spreng, Sheldon-Keller, & Adam, 1998). 그리고 또래와의 친밀한 접촉이 학교나 사회생활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심리적 적응과도 연결될 만큼 그 중요성이 크다. 이렇듯 청소년기의 또래관계가 주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또래관계에서 경험하는 외상경험 또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김예리, 2002).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의미 있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죽음을 고등학생들은 외상경험으로 보고하였으며(김현미, 정민선, 2014), 대학생들 대상으로 한 외상사건 연구에서도 친한 친구의 사망으로 인한 충격정도는 가족 또는 친척의 사망이나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에서 오는 고통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보고되고(신지영, 이동훈, 이수연, 한운선, 2015) 있음을 고려하면, 갑작스러운 세월호 재난으로 갑작스럽게 친구들을 잃은 청소년들의 외상경험은 매우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외상사건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겪은 것을 말하지만, 간접적으로 겪은 사건에서도 외상이 발생한다. DSM-5에서는 외상 사건을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상해, 또는 개인의 신체적 안녕을 위협하는 사건을 본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것을 목격한 경우, 그로 인해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감정을 경험한 경우로 정의하였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렇듯 간접적인 경험도 외상사건이 될 수 있으며, 외상사건의 직접 피해자 뿐 아니라 간접 피해자에게도 외상 스트레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차적인 외상 스트레스는 외상사건을 직접 목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겪은 외상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등 간접적으로 사건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는 정서적 개입(emotionally engaging)의 결과를 말하는데(Jenkins & Baird, 2002), 외상사건의 간접 피해자들은 직접적인 외상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침습, 회피, 과도한 각성과 같은 증상을 경험하며(김보경, 2012; Figley, 2002)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유사 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therall, 1999; Cosgrove, Brady, & Peck, 1995; Figley, 1995; Galek, Flannelly, Greene, & Kudler, 2011). 즉, 간접적으로 외상을 경험하였다더라도 개인이 지각한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직접 외상경험과 유사한 우울, 분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Mitchell, Crane, & Kim, 2008, Vranceanu, Hobfoll, & Johnson, 2007).

미국의 9.11 테러에 관한 연구들도 직접적으로 외상을 겪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타인의 외상경험이 영향을 미치며, 더 나아가 재경험, 회피적 대처 양식, 정서적 무감각, 과각성, 충격, 불안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Baschnagel, Gudmundsdottir, Hawk, & Beck, 2009; Cho et al., 2003; Holmes, Creswell, & O'Connor, 2007; Suvak, Maguen, Litz, Silver, & Holman, 2008). 또한 9.11 테러 이후 뉴욕에 거주하는 9~12세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Schlenger et al., 2002)에서는 뉴욕 거주 학생들이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의 학생들보다 2배 이상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였는데 이는 대형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간접외상에 노출될 수 있음을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 지역 346명의 고등학

생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재난에 대한 청소년의 외상경험을 살펴본 연구에서도 가까운 지인 중 세월호 피해자가 없음에도 세월호 사건 이후 슬픔과 분노를 크게 느꼈으며, 그 외에도 우울, 허무감, 무력감, 불안, 회의감 등을 느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중 55.7%가 간접외상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손승희, 2014).

국내의 선행연구들은 외상사건의 경험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영향력은 한 사람의 삶을 통해 강하고 오래도록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한다(안귀여루, 2001; 최은영, 안현의 2011; McCormack, Hagger, & Joseph, 2010; Van der Kolk, Roth, Pelcovitz, Sunday, & Spinazzola, 2005). 청소년의 경우, 발달 단계상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가 진행되는 시기에 놓여 있으며 정체감 형성의 과도기 단계에 있다. 따라서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취약할 뿐더러 스트레스 대처능력이 부족하다(김현미, 정민선, 2014). 청소년 시기가 어느 정도의 긴장과 불안을 수반하는 것은 보편적이지만(오경자, 양윤란, 2003), 생의 초기에 경험한 외상사건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생리적으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 및 학업을 비롯한 사회적 기능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김지은, 이민규, 2015).

청소년기의 외상경험은 그 경험과 직접 관련된 문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는 불안, 우울, 정서 조절곤란 등을 경험하며(Barlow, Allen, & Choate, 2004), 인지적으로는 세상이 완전히 위험하다는 신념, 자기 자신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신념을 가지게 된다(Foa & Rothbaum, 1998).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선하지 않고, 비양심적이며,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부정

적인 신념을 가지게 되며, 세상에 대해 예측 불가능한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게 된다(안현의, 2005; Janoff-Bulman, 1992).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외상경험은 성인기에 비해 보다 가출이나 비행 같은 충동적이며 공격적인 행동으로 표출되기도 하며(Everstine & Everstine, 1993), 자기소외적 행동, 섭식장애, 학업실패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Allen, 1995).

청소년기 외상사건과 같은 강력한 스트레스 사건의 경험은 성인기 다양한 심리적 장애의 발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김현미, 정민선, 2015; 윤명숙, 이재경, 2014; 은헌정, 이선미, 김태형, 2001; Cogle, Resnick, & Kilpatrick, 2009; Dziuba-Leatherman & Finkelhor 1994; Finkelhor, 1984; Katzm, Pellegrio, Pandya, Ng, & DeLisi, 2002; La Greca, Silverman, Vernberg, & Prinstein, 1996; Pynoos & Nader, 1990; Taylor, Asmundson, & Carleton, 2006; Terr, 2003). 이와 같이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아직 신체, 성격, 인지발달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 외상은 정서, 인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성인기 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Allen, 1995; Cohen, 2003; Everstine & Everstine, 1993; Terr, 2003).

특히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외상경험에 비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으로 인한 심리적 외상 경험은 재난 이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강영훈, 2011; 송현주, 2010). 중국에서 지진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재난 이후 9개월 이후에도 불안, 신체화, 우울 증상을 보고하며, 재난발생 3개월 이후의 삶의 질은 9개월 이후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강력한 예측인자가 된다고 보고

한 연구결과(Wang et al., 2000)를 고려하였을 때, 세월호 재난으로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심리적인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은 간접적인 외상 경험자이지만, 친구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 경험으로 직접적인 외상 경험자라고도 할 수 있다. 세월호 재난으로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손승희(2014)의 청소년 간접외상에 관한 양적연구를 제외하고는, 관련 연구들이 아직까지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세월호 재난의 경우 사회적 충격이 컸고, 직·간접 피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회적 여건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월호 재난을 통해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심리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그들의 외상경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지만, 연구가 시작되었던 세월호 1주기 당시 그러한 경험을 갖은 청소년들이 아직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현장 전문가의 자문에 따라 청소년이 아닌 이러한 경험을 가진 청소년들을 상담한 상담자들을 인터뷰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 이후 단원고가 위치한 학군의 중고등학교에 약 5개월에서 1년여 간 긴급 투입되어 재난 위기상담에 참

여해은 상담자로서 그들의 보고에 의하여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 경험 특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들은 세월호 위기개입에 참여한 안산지역 정부 산하기관 두 곳을 추천 받아 본 연구목적에 기관장에게 전화로 설명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기관 한 곳으로부터 소속 상담자들에게 연구의 취지에 대한 설명과 사전 인터뷰를 허락받았다. 사전 인터뷰에서 선정된 기관의 상담자 15명에게 세월호 사건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을 상담한 경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연구참여 의사를 타진하였다. 연구선정 기준에 부합되는 상담자들 중 연구참여를 원치 않은 상담자들을 제외하고는 9명이 최종 선정이 되었으며, 이들에게 연구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연구동의를 받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성별은 남자 2명, 여자 7명, 연령은 30세 이상 56세 이하, 안산 인근의 경기도 거주자 두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안산 지역 거주민이다. 학력은 학사 1명, 석사 6명, 박사 2명이며, 상담경력은 3년 이하가 1명, 4년 이상 10년 이하가 6명, 10년 이상이 2명이다. 과거 개인적으로 외상경험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는 6명이었다.

자료 수집 및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포커스그룹 인터뷰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가 근무하는 장소에서 모든 연구참여자가 참여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1회 진행 한 후 한 주 뒤부터는 연구참여자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 심층면담 전에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한 이유는 포커스그룹 인터뷰 전에 면담 질문지를 연구참여자들에게 보내

질문들을 검토하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했지만, 처음 만난 면담자들에게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청소년 내담자의 외상경험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연구참여자들과 면담자간에 라포(rapport)를 형성하고 개별심층면담에서 세월호 재난 외상경험에 관한 무거운 이야기를 꺼내야 하는 연구참여자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개별 심층면담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으며, 또한 개별심층면담에 참여하기 전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1년 전의 경험과 기억을 되살리는데 그룹인터뷰가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8명의 연구참여자는 두 차례, 1명은 세 차례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은 1회당 2~3시간이 소요되었다. 모든 면담은 재난심리지원 관련 연구와 질적연구를 다수 수행한 바 있는 상담전공 교수 1인과 상담심리학 박사 1인이 직접 실시하였다. 면담기간은 세월호 재난사고 발생 후 1년 정도 된 2015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세월호 1주기 전 후 2주는 연구참여자의 심리적 상황을 고려하여 면담을 진행하지 않았다.

심층면담은 연구자의 선입견이나 가정을 배제하고, 연구참여자의 경험이 대해 자유롭게 진술되어질 수 있도록 반구조화 된 개방형 질문으로 진행되었다. “세월호 재난 위기상담을 진행하면서 친구를 잃은 청소년 내담자들의 외상경험과 그 특성에 대하여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하는 질문을 시작으로 참여자의 진술 흐름에 따라서 부가적인 질문을 덧붙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참여자가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면담에 응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미흡하거나 애매한 표현을 확인하면서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과 진술 당시의 분위기 등을 메모하였으며, 면담 내용은 녹음한 후 필사하여 문서화하였다.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면담자 2인과 석사과정생 2인이 Krippendorff(2003)가 제안한 내용분석 절차에 따라 자료 분석에 참여하였다. 면담자 2인은 합의적 질적연구(QQR),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방법, 근거이론, Mandelbaum의 생애사 연구, 내용분석 연구와 관련하여 자료 분석 경험이 있으며 학술지에 10여 편 이상의 질적 연구물 출간 경험이 있다. Krippendorff(2003)의 내용분석은 사회과학의 여러 주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융통성 있는 질적연구 방법으로 단순한 내용의 열거가 아니라 내용을 차원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을 분석함에 있어 다방면의 차원을 동시에 분석하고자 했기에 Krippendorff(2003) 방법들을 따랐다. Krippendorff의 내용분석 절차 첫 단계는 텍스트 전체에 대한 연구자의 이해 과정으로 연구자들은 심층면담 축어록을 반복하여 읽으면서 연구참여자의 보고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인지, 정서, 행동적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s) 찾기이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을 문장으로 만들었고 이 문장이나 어구들 중에서도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인지, 정서, 행동적 특성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들을 발견하여 의미를 구성했다. 다음 단계는 범주화 단계이

다. 연구자들은 의미진술을 개념화한 후 이 개념들 중 서로 관계있거나 유사한 것들을 결집하여 범주화하였다.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범주를 인지적 차원, 정서적 차원, 행동적 차원으로 나누어 범주를 재배열했다. 연구자들은 자료수집과 분석에 있어 충분성과 적절성을 염두에 두었다.

연구의 윤리적 고려와 타당성

본 연구시작 전에 연구자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사전승인을 받았으며, 연구참여자의 소속과 이름, 연락처는 익명으로 표기 될 것이며, 연구참여의 자발성, 참여 의사 철회 가능 등, 인터뷰 녹음 등에 대해 설명을 하고 본 연구목적 이외에는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녹음과 축어록 내용은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였다. 연구참여자에게 면담과정 중이나, 축어록 분석과정, 면담결과를 토대로 연구논문 작성과정 중에 언제라도 연구참여자의 철회 요구가 있을 시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다. 또한 인터뷰 도중 과거의 경험을 구술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충격이 있을 경우 인터뷰를 중단하고 정신건강 및 심리치료 전문가에게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음을 고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의 확보를 위해 Guba와 Lincoln(1981)의 평가기준(사실적 가치, 일관성, 중립성)을 적용하였다. 면담을 실시한 상담전공 교수 1인, 박사 1인, 석사과정생 2인이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서 연구주제 선정 및 내용구성을 하였다. 연구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면담자료와 현장 자

료, 관련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자료수집원의 삼각검증을 거쳤다. 사실적 가치의 유지를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대한 연구자들의 분석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석 및 기술 후 연구참여자에게 내용을 보내어 검증을 받는 절차를 거쳤다. 또한 분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수의 질적연구 논문을 게재하고 질적연구방법론에 관한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의 질적연구 방법론 전문가(박사) 1인에게 지속적인 자문 및 감수를 받았다. 감수자는 의미내용들이 각 차원에 적절하게 배치되어 범주화되었는지, 범주명이 모든 핵심개념을 포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검토하고 의견을 주었으며 분석팀은 감수자의 의견을 토대로 내용분석 결과를 수정하였다. 이러한 감수자의 감수의견을 4개월 이상 받고 수정보완 작업이 진행되었다.

결 과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 발생 후 단원고 인근의 중·고등학교에 긴급 투입되어 5개월에서 1년여 동안 위기상담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보고를 통하여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1에서 연구참여자가 보고한 의미구성 내용을 범주별로 제시하였다.

심층 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 청소년의 주요 심리적 특성은 ‘신체’, ‘정서’, ‘인지 및 학업’, ‘행동 및 대인관계’ 4가지 차원의 13개 범주, 29개의 의미내용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외상경험 특성으로 신체차원은 ‘심적 고통이 신체증상으로 나타남’, ‘환시와

환청 등 지각 이상을 경험’ 2가지 범주, 정서차원은 ‘격해져 가는 슬픔과 분노’, ‘불안과 무서움, 우울’, ‘미안함과 죄책감’ 3가지범주, 인지 및 학업차원은 ‘사람들도 싫어지고 학교 다니기도 싫어짐’, ‘세상에 대해 불신과 부정적인 시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 ‘인지기능의 저하와 학업의 중단’ 3가지 범주, 행동 및 대인관계차원은 ‘슬픔과 상실에 대응하는 방식’, ‘외현화 행동 문제’, ‘또래관계 어려움’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기’ 4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신체차원

심적 고통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남

소화기 계통 질환.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감내하기 어려운 심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신체증상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세월호 발생 초기에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스트레스를 경험한 청소년은 소화기 계통의 질환을 호소했다고 보고하였다.

현장에 나가서 고위험 아이들을 상담하니까 애들이 다 몸이 아파있었어요. 신체화 현상이 나타난 거죠. 대개 소화기계통의 질환. 우리가 만난 애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아이들이었고 그 수준이 심각하니까 소화기 질환까지 생겼더라고요. 입 주변이 다 부르트고요. (연구참여자가 5)

체중의 감소.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 중 먹지 않아 체중감소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보고하였

표 1. 세월호 피해자 친구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대한 범주 및 의미내용

| 차원 | 범주 | 의미내용 |
|---------------------------|-----------------------|--|
| 신체 차원 | 심적 고통이 신체증상으로 나타남 | 소화기 계통 질환 |
| | | 체중의 감소 수면의 질이 떨어짐 |
| 정서 차원 | 환시와 환청 등 지각이상을 경험 | 죽은 친구들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림 |
| | 격해져 가는 슬픔과 분노 |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슬픔과 상실감 격해져가는 내면의 분노 |
| | 불안과 무서움, 우울 | 불안하고 두려움 꿈에 나타난 친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무서움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함 |
| 미안함과 죄책감 | 미안함과 죄책감 | 일상의 욕구를 느끼는 것에 미안해함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낌 |
| | | |
| 인지 및 학업 차원 | 사람들도 싫어지고 학교 다니기도 싫어짐 |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고, 금방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지? 너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며 학교 다니기가 싫어짐 |
| |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시선 | 세상을 염세적,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 불신 |
| |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 | 친구들의 죽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낌 |
| | 인지기능의 저하와 학업의 중단 | 단순한 작업도 할 수 없을 만큼 인지기능이 저하 기억력과 학업성적의 저하 충격과 슬픔으로 학업을 중단함 |
| 행동 및 대인 관계 차원 | 슬픔과 상실에 대응하는 방식 | 감당할 수 없어서 살던 곳을 떠남 죽은 친구들을 떠올리는 게 힘들어 상담받기를 거부함 친구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애도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 회피함 |
| | 외현화 행동 문제 | 게임중독 및 흡연 문제 몸을 돌보지 않은 자기치별적 위험행동 비행문제와 자살시도 |
| | 또래관계 어려움 | 다시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친구들을 사귀지 않음 세월호 이야기로 서로 불화와 갈등이 생겨 또래관계가 악화 |
| |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기 | 친구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함 친구의 빈자리를 대신함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연대의 힘 |

다. 세월호 재난 이후 약 1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거의 밥도 하루 한 끼를 먹는데 아주 조금 먹고... (연구참여자 9)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약 1년이 지난 현재에는 겉으로 보이는 다른 부분에서는 안정을 많이 찾았는데 지금까지도 몇몇 아이들은 체중이 4kg이 빠졌다가 정상이 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연구참여자 1)

수면의 질이 떨어짐.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초기에는 불면과 낮은 수면의 질을 호소하였으며 이후 상담이 진행되면서 다소 수면이 나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초기에는 불면을 되게 호소했고 거의 잠을 자지 못했고... (연구참여자 9)

초기에는 수면의 질이 엄청 많이 떨어지고요... 대부분 15회기 20회기 이상 상담을 해서 외면적으로는 안정을 많이 찾았어요. 수면이 돌아 오구요. (연구참여자 1)

환시와 환청 등 지각 이상을 경험

죽은 친구들이 보이고 목소리가 들림.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 중 희생자 및 유가족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학생들은 극심한 외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환청과 환시 등의 지각 이상을 경험하는 현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00학교 00학년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엄마, 아빠, 언니 이렇게 4인 가족인데 언니가 좀 원래부터 아파서 부모님이 다 언니한테 몰입되어 있고... 그래서 친한 오빠가 엄마, 아빠, 친구 그런 역할을 다 해준 거죠. 그런데 그 오빠가 하루아침에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내담자가) 굉장히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헛것도 보이고... (연구참여자 3)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환청도 들렸다고 얘기 했었고요. (연구참여자 9)

정서차원

격해져 가는 슬픔과 분노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슬픔과 상실감.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세월호 재난 이후 시간이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슬픔이 깊어졌다고 보고하였다. 세월호 사건 직후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청소년은 수업시간, 쉬는 시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는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도 울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때는 뭐 애들도 장난 아니었어요. 그냥 수업시간에 울기도 하고 복도에서 애들끼리 껴안고 울고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계속 보니까.. 저희도 초기에 감당이 안 될 정도였어요. (연구참여자 4)

제가 교회 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그냥 교회에 오자마자 바로 계속 울어요. 그냥

뭘 하든지 찬양을 듣던 설교를 듣던 계속 울어요. 그런 아이들을 보니까 저도 같이 눈물이 나고. 가사에 그런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런 게 있는데, 애들이 더 엉엉 우니까 다 같이 울고... 그런 분위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연구참여자 7)

격해져가는 내면의 분노.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마음속에 큰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죽을 때 흥기를 품고 가서 하나님한테 복수를 하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내면에 울분과 분노가 있는 청소년도 있었고 세월호 재난 이후로 이전에는 하지 않던 욕을 하거나 거친 표현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도 있었으며, 선장과 정부 등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진상 규명을 하지 않고 회피하고 있다고 극렬한 분노를 표출했다라고 하였다.

죽음은 자기한테 있어서 다른 게 아니라 복수. 다른데 복수 할 것도 없이 저승에 가서 하나님 만나면 복수를 하고 싶다고... (연구참여자 1)

엄마가 봤을 땐 좀 행동적으로나 뭔가 아이가 평소랑 다르다. 뭔가 폭력적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때 긴급 상담으로 상담을 신청하셨어요. (연구참여자 4)

선장이 잘못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아이가 자연스럽게 이제 선장 욕을 하거나 나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연구참여자 4)

집에서는 TV를 보면서 엄청 선장 욕을 하고... 막 욕설을 했고... (연구참여자 2)

애들이.. 나는 꿈속에서 보이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전혀 인식을 안 해서 되게 답답했고...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울분이 터졌다 (연구참여자 1)

그 아이들이 단기든 장기든 상담을 받고 다시 일상생활을 찾고 자기를 돌보고 뭐 이런 것은 됐는데, 전반적으로 분노감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 (연구참여자 1)

아이들이 분노와 애도 이런 것들을 잘 견어내지 못하고 감정조절이 안 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산에 시한폭탄들이 걸어 다니고 있다고. 언제 이게 터질지 모른다고 (연구참여자 7)

불안과 무서움, 우울

불안하고 두려움.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 초기에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극심한 불안을 경험했으며, 재난 이후 시간이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고 파악하고 있었다. 친한 친구를 잃은 한 청소년의 경우 무서워서 혼자 잠을 자지 못하고 부모님과 잠을 자거나 하는 등의 현상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한 어머니가 그러는데 자기 아들이 밤에 잠도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친구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고. 그 큰 것이 엄마하고 와서 잠을 같이 잤대요. 무서워가

지고. 혼자 잠을 못 잤대요. 그 정도로 외상이 심했던거지... (연구참여자 5)

가족관계가 안 좋았던 아이가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이 나고) 아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걸 보고 제가 (개인 상담을 마치고는) 직접 어머니한테 전화까지 했어요(아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불안하니 자극하지 마시고 받아주셔라라고...)(연구참여자 3)

꿈에 나타난 친구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무서움.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이 시간이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생전과 다른 모습으로 죽은 친구들이 꿈에서 계속 나오는 꿈을 꾸게 되어 무서움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기억에 남는 건.. 한 친구는 꿈을 되게 많이 꿴어요. 바닷속에 있는 아이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런데 마지막 꿈에서 친구가 굉장히 파랗게 질려있고 젖어 있고 나는 꿈속에서 보이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전혀 인식을 안 해서 되게 무서웠고... (연구참여자 1)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함.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우울해 했으며, 가족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청소년들은 세월호 충격에 대한 완충망이 없어 더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고 보고하였다.

세월호 이전에 상담이 진행이 시작이

됐을 때 애가 굉장히 무기력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친한 언니가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되고 나니까 더 우울해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부분을 상담에서 호소했었어요. (연구참여자 6)

미안함과 죄책감

일상의 욕구를 느끼는 것에 미안해함.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 중에 수시로 희생자들에게 미안함을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수면, 식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생리욕구를 느끼는 것조차 미안해했다고 진술하였다.

학교 나갔을 때 애들이 죄책감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나 생각하면서 급식시간에도 안 먹어요. 밥을 먹는 게 너무 죄스럽다. 그 아이들이 굶어서 차가운 바다 속에서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밥을 먹고 내가 어떻게 수업을 듣고 내가 어떻게 웃고 떠드냐.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죄스럽고. 자기 때문인 거 같고... (연구참여자 7)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낌.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면 곧 희생자들이 떠올라 죄의식을 느꼈으며,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을 무척 죄스러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세월호 사고 직전에 희생자와 갈등이 있었던 청소년은 세월호 재난을 통해 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보고하였다.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고 얼마 뒤에 월

드컵이 시작됐는데,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더라구요. 세월호 사건 당시에 아들이랑 친한 친구 ○○가 죽었는데, 평소에 축구를 참 좋아했던 ○○는 월드컵 볼 수 없는데 자기는 보면서 즐겨도 되는지 고민하더라구요. 보고 싶지만 보면 안 될 것 같은, 자기만 즐거우면 안 될 것 같은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5)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교회 언니가 단원고 2학년 학생이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수학여행 가는 전날 언니랑 되게 많이 싸웠고... 그래 가지고, 가다가 배 사고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사고가 나서... 다 나 때문이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고... 사건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그 마음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계속 힘들어했어요. (연구참여자 7)

인지 및 학업 차원

사람들도 싫어지고 학교 다니기도 싫어짐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잊고 금방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지?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빨리 잊고 어떻게 금방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고 이런 게 싫다고 이야기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정말 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금방 이렇게 사람들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많이 했

어요. (연구참여자 1)

그때 제가 만났던 아이들 중 한명이 ‘다들 너무 빨리 잊는 거 같아서 그게 너무 싫다. 빨리 잊혀지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하더라구요. (연구참여자 8)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보며 학교 다니기가 싫어짐.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소중한 사람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과 달리 세월호 재난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이야기하고, 화젯거리 삼아서 이야기하는 학교 아이들에 대해 분노하며 이 아이들과 거리감이 느껴져 함께 학교 다니기 싫어했다고 보고하였다.

아이들은 자기 친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몇 명 죽었대? 이제 산 사람 몇 명이래?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너무 이해가 가지 않고 너무 화가 난다고. 그래서, 학교 오면 일단 다 차단하는 거예요. 모든 소문들, 주변 아이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세월호 사건을 화젯거리로 삼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힘들고 내 친구를 많이 잃었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걸 화젯거리 삼아서 오늘은 몇 명이고 내일은 몇 명일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면서 나는 이 학교 정말 더욱 다니기 싫다. (연구참여자 7)

자기 교실에 있고 싶지 않다. 왜냐면 애들이 친구를 잃은 슬픔에 대한 공감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상담실에 와서 자거나 저한테 상담 받거나... (연구참여자 7)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인 시선

세상을 염세적,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사람을 불신.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국가나 사람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은 부모나 대중매체, SNS를 통해 정보를 접하였으며 이로 인해 정부부처와 국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세월호 재난의 대처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와 어른들의 무책임한 대응에 대해 냉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친구를 잃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특히나 여기 안산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더... 부모로도 듣고, 매체로도 듣고, SNS를 통해서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과 서로 서로에게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이야기하면서 국가나 사람에 대해 불신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6)

그래서 굉장히 염세주의처럼.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짜증난다. 왜 저런 식으로 대처하나. 진실은 뭐냐. 그리고 처음엔 뭐 선장이 먼저 피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른들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것들 답답하다 이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고... (연구참여자 7)

이제 내가 열심히 살아 뭐해. 내가 뭐 이렇게 공부하면 뭐해, 인생은 한방인데

이런 식의 반응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뭐 내가 아등바등 살면 뭐하나. 어차피 한 번 죽을 인생인데. 이런 애들 같지 않은 말들도 되게 많이 했고... (연구참여자 7)

제가 나간 학교는 단원고 아이들과 중학교 동창들이 많았던 고등학교예요. 그 아이들이 ... 전반적으로 분노감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 아마 세상에 대한 분노감이 계속 투사되는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1)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

친구들의 죽음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낌.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친구들의 죽음에 대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끼고, 자신감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친구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이 아이들이 (자신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에 대한 무력감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연구참여자 1)

오히려 청소년 아이들은 PTSD 증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무기력이 많이 나타나요. 무기력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연구참여자 5)

인지기능의 저하와 학업의 중단

단순한 작업도 할 수 없을 만큼 인지기능이 저하.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단순한 작업도 할 수 없을 만큼 인지기능의 저하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거의 멍한 상태에 있는, 학교 차원에서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애들은 시험도 안치게 했거든요. 시험안치는 애들은 모여서 미술치료를 했어요. 거의 무채색 아니면 반응도 느리고 단순한 작업도 못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기억력과 학업성적의 저하.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기억력의 저하로 성적이 하락하거나 대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이 삶의 전반적인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고하였다.

간접경험자로 보면, 간접경험자는 1학년 이죠. 지금 대학교 1학년. 대학 못간 애들도 많아요. 점수가 너무 많이 안나와 가지고. 세월호 같은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으면 암기과목이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이 났을 당시에 기말고사 정도였는데, 공부를 하는 건 같은데 점수 안 나왔고요. (연구참여자 5)

제가 만났던 애들 중에 학생부 일을 하는 모범생 같은 아이가 있었어요. 딱 보기에 얼굴에 딱 모범생이라고 쓰여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많은 친구들을 잃었거든요. 그러면서 성적이 곤두박질 쳐가지고 담임선생님 손에 끌려왔어요. 상담 좀 해달라고... (연구참여자 7)

충격과 슬픔으로 학업을 중단함.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삶의 의미에 회의를 느끼거나, 큰 충격과 슬픔으로 인해 방향성을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는 학업 및 진로에 대한 중도 포기로 까지 이어졌다고 진술하였다.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사례는, 한 아이가 이제 연예인 지망생이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중심 성향이라서 말이 넓고 굉장히 친구가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녔던 중학교에서만 친했던 아이가 아니라, 다른 학교 아이들이랑도 다 친했었어요. 근데, 내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 누구 죽었고 해서 200명 이상 죽었다. 희생된 아이들 중 99%는 내 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친구들을 다 잃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연예인을 하겠냐. 자기는 배우를 안 하겠다... 이러면서 자퇴도 하게 된 거죠. (연구참여자 7)

최근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의뢰된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학교도 전학가고, 공부도 잘했었던 아이였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 친구들을 다 잃고 나니까 이 아이가 완전 정말 무기력해진 거죠. 삶의 의미도 없고 그래서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결국 자퇴를 해서... 거의 혼자서 그냥 집에만 있었던 거죠. 작년에 자퇴하고 나서 한 8월에 최종으로 자퇴를 하고 올 말까지 이제 그냥 집에만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밖으로 나온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검정고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 상담기관에 연락

을 했더라구요. (연구참여자 4)

죽은 친구하고 자기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거든요. 친구가 죽으니까 그 아이는 학교를 그 자퇴하고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연구참여자 5)

행동 및 대인관계 차원

슬픔과 상실에 대응하는 방식

감당할 수 없어서 살던 곳을 떠남. 연구 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죽은 친구를 떠올리게 하는 상황을 피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어떤 청소년은 죽은 친구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했던 동네를 떠나 이사나 유학을 가기도 하였다.

정말 그렇게 친구들을 정말 많이 잃었는데, 그 친구들하고 추억이 많잖아요... 추억이 있는 골목이며 이런 곳을 전혀 다니고 싶지도 않고 보고 싶지도 않아서 결국은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연구참여자 1)

죽은 친구하고 자기하고 둘도 없는 친구였거든요. 친구가 죽으니까 그 아이는 학교를 그 자퇴하고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연구참여자 5)

죽은 친구들을 떠올리는 게 힘들어 상담 받기를 거부함.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상담 받기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상담 및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이런 도움을

거부하고 혼자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어떤 청소년은 죽은 친구를 떠올리게 되는 분향소 근처에 위치한 상담소를 찾아오는 것조차도 힘들어 했다.

외부접촉을 거의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물어봤거든요? 학교.. 그때 당시에 이런 심리적인 지원들을 많이 했는데, 너는 왜 그걸 받을 생각을 안했냐고 그랬더니, 그냥 아무하고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4)

죽은 친구와 관련된 얘길 꺼내면 어.. 그냥 그런 얘기 별로 안하고 싶다. 왜 안하고 싶은지 물어보면, 언니 생각이 나니까 자기도 자꾸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얘기를 안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연구참여자 6)

기본적으로 아이들 자체가 상담에 대한 자발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다가, 죽은 친구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상담 중에 얘기를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힘드니까... (연구참여자 6)

죽은 친구들이 자꾸 떠오르니까... 본인이 힘드니까...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상담센터 근처 화랑유원지에 분향소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처음에는 센터로 오는 거 자체도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연구참여자 6)

친구를 잃은 슬픔을 표현하고 애도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 회피함.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속

으로는 견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다고 할지라도 겉으로는 괜찮은 듯 보이려고 행동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는데 그 이유는 슬픔을 표현하고 애도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청소년들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동하고 친한 친구들끼리도 세월호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슬픔감정이 올라올 때에는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 폰을 보는 등 슬픈 감정으로부터 어딘가로 회피하려 하려는 모습을 보였고, 상담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15회기 이상 상담이 진행 된 후 상담이 종결되려는 시점에 와서야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한다고 진술하였다.

상담자들이 세월호 재난이 나고 바로 학교로 외상 후 스트레스 교육을 나갔었거든요? 교육을 나갔는데, 애들이 다 만 짓하고 있더라요. 그러면서 툭툭 던지는 말이, 전혀 안 슬픈 것처럼 이런 거 안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근데 그것도 다... (애들만의 방식으로) 애도 반응의 일종이야.. (이게) 다... (연구참여자 5)

사실 이 아이들이요 감추고 얘기 안하고... 친한 친구들끼리도 이야기를 하지 않는대요. 친한 친구들끼리도 세월호의 세자도 얘기 안한대요.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연구참여자 3)

학교에서는 담임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특별하게 다른 것 없이 아이들이 똑같이 행동한다고... 아이들이 눈치를 보면서 오

히려 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을 해서 만나서 탐색이나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었구요. (연구참여자 2)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잘 몰라요. 슬프면 핸드폰 봐요. 스마트폰 보고. 처음에는 울음을 회피하더라고요. 안 슬픈 것처럼 만 짓 하거나... (연구참여자 5)

학교에 가면... 다들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자기 슬픔을)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니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연구참여자 5)

15회기 넘어가도록 (죽은 친구로) 자기가 힘들어 한 문제접근을 안 하고... 상담을 종결하기 바로 전에야 (그) 얘기를 했어요. (연구참여자 1)

제가 세월호 사건 발생하고 5개월 정도 지난 후에 학교상담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만났는데 상담을 오래 하고 싶어 하지 않았고 다들 저 지금 괜찮아요. 다시 꼬집어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 한 4회기 이상 5회기 정도 진행했던 친구는 10명중에 2명 정도예요. 처음에 이 친구들도 ‘아... 이 상담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하면서 상담을 안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8).

외현화 행동 문제

게임중독 및 흡연 문제.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 중 극심한 심리적 충격이 게임중독으로 이어지거나 심각한 흡연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교회 언니가 단원고 2학년 학생이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언니가 수학여행 가는 전날 언니랑 되게 많이 싸웠고... 그래 가지고, 가다가 배 사고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사고가 나서... (이 아이가 얼마나 황당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계속 게임에 완전 중독 된 거예요. 마음은 엄청 불안한데,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깐 방에 박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는 게임중독으로 빠지면서 게임으로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더라고요. 중독의 심리적 기저가 불안이라고 하잖아요.(연구참여자 7)

몸을 돌보지 않은 자기처벌적 위험행동.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로 잠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등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았으며, 나아가 자살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위험행동이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충격으로 인한 자기처벌적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충분히 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발목 깎스, 다친 상황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 발목으로 OO 시장까지 꽤 먼 거리를 일부러 뛰어가서 그 발목을 더 많이 악화시키고, 또 그 뒤로도 ... 잘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저는 자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

참여자 1)

그리고 자전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가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으로 동생이 죽고 난 후에는) 그걸 일부러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런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연구참여자 9)

비행문제와 자살시도.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 중 어떤 청소년들은 비행, 가출과 자살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가뜩이나 친구들이 (세월호) 사건을 당하게 되니까... 그 불안이 가중되고, 그래서 비행을 저지르고, 가출하고... 이러면서 자퇴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연구참여자 7)

여자아이인데 친한 오빠가 하루아침에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담자가) 학교에서는 거의 침울하게 있고... 자기의 방향을 잘 잃어버리고 죽고 싶다고 하고 이랬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성적인 분들이라서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그리고 이 때 자살사건들이 있었는데, 유가족 부모들이 자살을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원래 취약했던 어른이나 청소년들이... 세월호 사건 같은 사회적으로 큰 일이 일어나자 제 일인지 남의 일인지 구분 못하고 삶의 의욕이 없어지면서 자살시도를 했었어요. (연구참여자 5)

또래관계 어려움

다시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친구들을 사귀지 않음.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또래관계 형성과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청소년은 다시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인해 또래들을 사귀지 않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월호로 친구를 많이 잃은 한 아이는 사건이 일어난 뒤로는 애들하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다가오면 어... 내가 저 친구하고 사귄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곧장 떠오르는 생각이 또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에 친구를 안 사귀겠다고 했어요. (연구참여자 5)

세월호 이야기로 서로 불화와 갈등이 생겨 또래관계가 악화.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서로 불화와 갈등이 생기면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서로에게 분노감을 갖게 되면서 또래관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했다.

사건 이후에 아이들끼리 오히려 뭔가 결속된 유대관계를 통해서 따뜻함을 자꾸 자꾸 경험하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래도 기존에 아이들끼리 학교폭력이나 학교관계에서 피상적인 그런 관계를 많이 겪는데다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불신이 생기면서 더 유대관계가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연구참여자 6)

학생들을 만나면서... 많이 치료가 됐다

고 생각하지만, 전반적으로 분노감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서 분노감 때문에 관계를 많이 해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일상생활을 찾고 자기를 돌보고 뭐 이런 거는 됐는데, 세상에 대한 분노감이 그렇게 주변 사람에게 계속 투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대인관계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계속 지속되어야 할 것 같아요. 분노를 표현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들) 대인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는 게 계속 확인이 되거든요. (연구참여자 1)

피해자 동생의 친구들을 만났는데 애네들 고충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인 친구가 감정기복이 너무 심하니까... 약속 했다가 신경질내고 가면 그냥 받아줘야 하고 이런 게 너무 다 반사였던 거예요. 개랑 안 친하고 싶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친구가 힘들어 하니깐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도 못하고. ‘애가 언니, 오빠를 잃었는데 내가 여기서 말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한 학기를 참았던 것 같아요. (연구참여자 3)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기

친구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함.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친구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청소년은 곁에 없는 친구들과 여전히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지된 번호로 연락하거나 주인 없는 SNS에 글을 남겼으며, 추모공원이나 장례식장을 자주 방문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

였다.

떠난 아이들과 함께 있던 기억들이 생생하잖아요? 항상 그 친구하고 꼭 뭐든 했는데... 혼자 돌아다니기가 너무 어렵고, 나가서 가다보면 그 친구하고 했던 것들이 자꾸 떠오르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더라구요. 그리고 특히 즐거운 날 크리스마스나 친구 생일이나 발렌타인데이 이런 날들에, 특히 여학생들은 그런 기념일에 함께 나누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죽은) 친구들이랑 이야기하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내담자가 그 친구 핸드폰으로 계속 문자를 보낸 거예요. 오늘 크리스마스에 같이 뭐 하면 좋았을 텐데 내가 없어 내 마음이 이렇다.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구요. (연구참여자 1)

메신저에 죽은 친구들이 아직 떠있으니깐. 그냥 답도 없는 카톡 메시지를 친구들한테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나 계속 오늘도 카톡을 보냈다 문자를 보냈다. 안산 지역 아이들은 어떻게든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페이스북 들어가 보고, SNS 많이 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나는 너 잘 모르지만 나는 뭐 어디 학교 누군데 꼭 살아 돌아와 이런 거 남겨 놓고. SNS에. 메신저 막 애들 막 그냥 막 보내보고. 비행청소년이든 아니든 카톡 보내는 건 너무 많았구요. 저한테 막 보여줘요, 애라고. 그러냐고 저도 사진 같이 보고. 같이 찍었던 사진도 상담실에 와서 보

여주고... (연구참여자 7)

친구들이 많으니까 한 달에도 한두 번씩 죽은 아이들의 생일들이 돌아온대요. 그러면 그 생일에 살아있는 친구들이 카톡으로 생일을 맞은 먼저 간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는 거죠. 그런 때의 대화가 쓸쓸하기 이를 데 없다고 하더라구요. ... 아이들이 시험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 장례식장도 많이 가고, 추모공원에도 많이 가고... (연구참여자 5)

친구의 빈자리를 대신함. 연구참여자들을 통해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살아 있었을 때 친구들이 했던 아들, 딸, 오빠의 역할을 대신 해나가며 그 자리를 메워 나가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친구의 죽음에 애도하고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 보고되었다.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나니깐, 서로 돕고 싶어 했어요. 죽은 친구들과 친했으니까 그 부모며 가족을 다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아파하고, 어떻게 아파하고, 어떻게 힘이 되어 줘야 하는지 아이들은 금방 알잖아요? 아이들이 친구의 부모님들에게 자신들이 딸이 되어 주겠다, 내가 아들이 되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죽은 친구의 부모를 자기가 찾아가 위로해 주고 싶어 했어요. (연구참여자 1)

가족의 빈자리를 채워주던 (학교) 오빠가 하루아침에 피해자가 된 거예요.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굉장히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어요. 2학기가 시작되면서 그 오빠만큼은 아니지만 다

른 친구들이 그 아이 옆에서 지지체계가 되어서 챙겨줬나 봐요. 그 다음부터는 좀 안정을 찾더라고요. 지지체계가 되게 중요했어요. 빈 공간을 누군가가 메워주면 그 자리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더라고요. (연구참여자 3)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연대의 힘. 연구참여자들은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에게 ‘연대의 힘’이 집단의 치료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나만 아픈 게 아니고, 우리 아직 다 같이 아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친구를 잃은 상실의 슬픔과 아픔을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청소년들이 조금씩 치유될 거라고 믿고 있었다.

세월호 사건 200일 추모 기념행사가 있었어요. 애들이 거기를 갔다 와서 훨씬 위로를 많이 받더라고요.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게 그냥 슬픔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나를 즐거운 마음으로 나눌 수도 있고. 이런 경험하고 나서 애들이 되게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아픔을 가진 아이들을 모아서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자기가 표현을 하고 나만 아직도 이런 게 아니고, 우리 아직 다 같이 아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연구참여자 1)

명절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날, 죽은 친

구들과 함께 만나고 싶은 그런 날들이 오면 다시 재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대부분의 애들이 추모공원을 가요. 삼삼오오 이렇게 짝을 지어서... 추모공원은 되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럴 때 좀 함께 모여서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재경험을 하더라도 각자 하지 않고 함께할 수 있는 어떤 장소라던지? 이런 배려라던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아이들이 그럴 때 재경험을 하면서 조금 치유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연구참여자 1)

우리가 겪은 아픔,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세대, 우리 안산, 이 세대가 겪는 아픔. 그래서 결속력이 강해지는 것도 봤고... (연구참여자 7)

하나는 안산시에서 개최되는 추모행사...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 기념물 같은 거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연구참여자 9)

논 의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 위기상담에 참여한 상담자들의 보고를 통해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의 외상경험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상담자들이 보고하는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 특성은 ‘신체’, ‘정서’, ‘인지 및 학업’, ‘행동 및 대인관계’ 4가지 차원의 13개 범주, 29개의 의미내용이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에서 신체차원은 ‘심적 고통이 신체증상으로 나타남’, ‘환시와 환청 등 지각 이상을 경험’ 2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청소년들은 감내하기 어려운 심적 고통을 경험하면서 특히 세월호 재난 초기에 소화기 계통질환, 체중감소, 수면의 질의 감소 등 신체증상이 발현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또한 희생자 및 유가족과 가까운 학생들 중 환청과 환시 등의 지각 이상을 경험하는 현상이 있었으며, 이는 외상경험을 한 사람은 메스꺼움, 현기증, 가슴통증, 피로, 체중의 증감 등의 신체화 증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신재호 외, 2008; Briere & Runtz, 1988; Walling et al., 1994; Wang et al., 2000).

둘째,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에서 정서차원은 ‘격해져 가는 슬픔과 분노’, ‘불안과 무서움, 우울’, ‘미안함과 죄책감’ 3가지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세월호 재난 초기에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은 극심한 불안을 경험했으며, 시간이 꽤 흐른 뒤에도 혼자 잠을 자지 못하거나 죽은 친구들이 계속 나오는 꿈을 꾸게 되어 불안과 두려움을 많이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은 친구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우울해 했으며, 특히나 가족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던 청소년들은 세월호 충격에 대한 완충망이 없어 더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자신들은 정작 친구들이 죽었는데도 수면, 식사 등과 같은 기본적인 욕구를 느끼는 것에 대해 미안해했으며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낄 때가 있으면 곧 희생자들이 떠올라 죄의식을 느꼈으며, 자신의 행복과 미래를 생각하는 것조차 무척 죄스러워했다. 특히 평소에 희생자와 관계가 좋지 않았던 청소년들은 더 큰 죄책감에 시달

렸다고 연구참여자들은 보고하였다.

안산지역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손승희(2014)의 연구에서도 세월호 사건 이후 그 지역의 많은 학생들이 친구 상실로 인한 슬픔과 분노감을 보고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이러한 증상들은 외상을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슬픔, 두려움, 무력감, 공포, 분노, 수치심 반응을 보고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관련 연구들과도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Brewin, Andrews, & Rose, 2000; Hathaway, Boals, & Banks, 2010; Orth, Cahill, Foa, & Maercker, 2008). 중국에서 지진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재난 이후 9개월 이후에도 불안, 신체화, 우울과 같은 스트레스를 보고하며, 재난발생 3개월 이후의 삶의 질이 9개월 이후의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강력한 예측인자가 된다고 보고한 연구결과(Wang et al., 2000)를 고려했을 때,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재난 직후부터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는 연구참여자들의 보고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와 적절한 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셋째,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에서 인지 및 학업차원은 ‘사람들도 싫어지고 학교 다니기도 싫어짐’, ‘세상에 대해 불신과 부정적인 시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 ‘인지기능의 저하와 학업의 중단’ 4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은 친구를 잃어 힘들어 하는 자신들과는 달리, 일상을 회복한 지역사회의 분위기와 또래의 모습에 거리감이 느껴져, 사람도 싫고 학교 다니기도 싫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세월호 재난의 대처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와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였으며 친구들의

죽음에 대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크게 느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은 선하고 우호적이며 의미 있는 곳이며, 나 자신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신념 등에 변화를 겪는다는 선행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조용래, 2012; Janoff-Bulman, 1991). 외상을 경험한 후 이러한 자신, 타인, 세상에 대해 부정적 신념을 갖게 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주혜선, 안현의, 2008; Ehlers & Clark, 2000). 또한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은 친구의 죽음에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무력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Moser, Hajcak, Simons와 Foa(2007)의 연구에서 외상 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 신념을 경험한다는 보고와도 비슷한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들은 재난 초기에는 단순한 인지기능을 요구하는 작업도 수행 할 수 없었으며, 집중력과 기억력의 저하로 학업수행에 어려움과 대입실패를 겪는 경우도 많았으며 삶에 자신감을 상실하거나 삶에 회의를 느끼고 결국에는 학업 및 진로계획에 대한 중도포기로 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즉, 무기력으로 이어지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신념과 세상에 대한 불신은 긍정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힘과 삶의 목표를 잃게 만들고 동시에 학생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학업의 유지도 힘들게 하였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의 학업중단이나 학업수행의 부진은 청소년의 장래의 삶과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 중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은 청소년

의 외상경험에서 행동 및 대인관계차원은 ‘슬픔과 상실에 대응하는 방식’, ‘외현화 행동문제’, ‘또래관계 어려움’ ‘아이들만의 방식으로 애도하기’ 4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친구를 잃은 상실에 대한 아픔으로 어떤 청소년은 죽은 친구를 떠올리는 상황을 아예 피해 죽은 친구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 했던 동네를 떠나 이사나 유학을 간 청소년들도 있었다. 속으로는 견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있었지만 청소년들은 친구를 잃은 상실의 아픔과 고통을 잘 표현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욱 아무렇지 않은 듯이 행동했으며, 친한 친구들끼리도 세월호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경우 상담 및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음에도 이런 도움을 거부하고 혼자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어떤 청소년은 죽은 친구를 떠올리게 되는 분향소 근처의 상담시설을 찾아오는 것조차 힘들어 했다. 슬픔 감정이 올라올 때에는 음악을 듣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등 아픔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담이 종결되려는 시점에 와서야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겉으로는 괜찮은 듯 일상생활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이유가 슬픔을 표현하고 애도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연구참여자들은 보고했다. 이러한 행동은 청소년기 가족보다도 더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며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친구를 잃은 슬픔을 마주하였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를 경험하고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방어적인 태도에서 비롯될 수도 있으며 유가족에 비해 작게 느껴지는 자신의 슬픔을 드러낼 수 없어 억누르는 것파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또래친

구의 죽음이라는 외상 사건에서 자신의 분노, 고통, 혼돈스러움 등의 감정을 성인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표현하기 어려워하며 일부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의 죽음에 대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애도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이승연, 2007; Noppe & Noppe, 2004).

또한 극심한 심리적 충격이 게임중독이나 심각한 흡연문제로 이어지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또한 어떤 청소년들은 스트레스로 잠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등의 행동으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흡사시켰으며, 어떤 청소년들은 비행, 가출과 자살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에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서 알콜 중독, 자살사고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과 동일하게 확인된다(우재희 2014; Everstine & Everstine, 1993; Waldrop et al., 2007). 연구참여자들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위험행동이 친구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과 충격으로 인한 자기처벌적 행동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으로 인한 고통의 책임을 자신에게로 돌려 스스로 처벌한다는 양심에 대한 기존의 문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최종천, 2012; Nietzsche, 1887/2009). 또한 청소년들은 다시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또래들을 사귀지 않았으며 학교에서 아이들과 세월호와 관련된 이야기들로 서로 불화와 갈등이 생겨 서로 관계가 악화되는 경우도 있었다.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다시 친구를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의미 있는 관계에 대한 개념이 깨지고, 또래관계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사람과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거나 적대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안현의, 2005; 채정호, 2004; Hawks, Blumental, Feldner, Leen-feldner, & Jones, 2011)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연구참여자들의 보고를 토대로 했을 때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신체, 정서, 인지 및 학업차원의 경험은 일상적 슬픔의 수준을 넘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경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은 아직도 마음속에서 친구들을 떠나보내지 못하고 정지된 번호로 문자를 남기거나 주인 없는 SNS에 글을 남기며 여전히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친구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죽은 친구의 SNS에 글을 남기는 이유는 비록 답장은 오지 않는 일방적인 소통이지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슬픔을 분출하고 죽은 친구들과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받는 것만으로도 청소년들이 위안을 얻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죽은 친구들의 아들, 딸, 오빠, 선배의 자리를 대신 메워 나가며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친구의 죽음을 애도하고 서로 위로하며 보듬어 주고 있었다.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은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 죽은 이를 빨리 잊으려고 노력하기보다 상처를 가진 친구들끼리 심적 고통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 가며 삶 속에서 죽은 친구와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이 죽은 친구들을 애도하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가게 해주는 아이들만의 애도의 방법이었다. 친구를 잃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연대의 힘’이 이들에 대한 치유방법이 될 수 있음을 연구결과는 시사한다(이동훈, 신지영, 김유진, 2015). 따라서 추모행사나 기념제 등과

같이 친구를 잃은 상실의 슬픔과 아픔을 함께 표현하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줌으로써 비슷한 아픔을 가진 아이들이 나만 아픈 게 아니고, 우리 아직 다 같이 아파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서로 위로하고 보듬을 수 있을 때 청소년들이 조금씩 치유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청소년들은 친구를 잃은 심적 고통으로 신체화 증상과 정서적 고통을 경험하고, 세상과 사람에 대해 불신하고, 자신에게 해를 입히는 위험행동을 통해 친구를 잃은 고통을 덜고자 하거나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편으로 친구를 잃은 아픔에 동질감을 느끼는 대상과는 심리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함께 아픔을 나누며 회복해가는 과정도 거쳐 나가고 있었다. 세월호 사건으로 친구를 잃었다는 공통된 아픔을 가진 청소년들이 서로 슬픔을 표현하며 이를 통해 위안과 안정을 느끼는 모습은 또래의 역할이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본 연구결과는 제시해주고 있다. 이는 사회적 상황에서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에게 또래 관계의 질이 불안의 감소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강민지, 김광웅, 2008; Bukowski & Hoza, 1989).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고려했을 때 학교 안과 밖에서 같은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또래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하여 자신의 아픔을 표현하고, 서로 지지와 격려를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재난 후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기에 자연스럽고 접근하기 쉬운 환경이며(Pfefferbaum et al., 2003),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으므로 학교중심으로 재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전략들을 가르치고, 지지관계를 강화해주며,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을 돕는 심리적 개입이 바람직하고 수월할 수 있다(Heath, Ryan, Dean, & Bingham, 2007).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시기에 재난을 겪을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Suomalainen, Haravuori, Berg, Kiviruusu, & Marttunen, 2011), 재난 이전의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못할수록(Freedman, Brandes, Peri, & Shalev, 1999), 또래와의 어려움이 있을수록(Terranova, Boxer, & Morris, 2009) 재난 후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반면, 정서적 지능, 조절능력, 긍정적 정성, 희망과 같은 개인 요인, 사회적 지지자원과 같은 환경요인은 외상 후 회복력과 적응력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한태영, 2005; Bates, 2005; Hunt & Evans, 2004; Terranova, Boxer, & Morris, 2009). 본 연구는 세월호 재난의 최대 피해지역인 안산에 거주하는 재난의 간접 피해자이며, 갑작스럽게 친구를 잃은 직접 피해자인 청소년을 상담해온 상담자들을 통해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신체, 정서, 인지 및 학업, 행동 및 대인관계 차원에서 외상경험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외상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위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을 확인하고 적절한 심리적 개입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은 가족과 학교교사들에게서도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학교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

행될 수도 있지만, 친구를 잃은 슬픔으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을 확인하여 부모나 교사에게 연구를 위한 면담을 제안하는 것이 상담윤리나 연구윤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보고만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위기상담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심리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1차 분류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만나다다가 외상경험에 대한 탐색과 상담개입에 있어서 부모나 교사보다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어서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을 탐색하는데 그들의 경험이 보다 신뢰로울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는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대해 부모나 교사의 관찰정보를 추가한다면 이를 통해 질적연구에서 중요시하는 자료의 다원화의 삼각검증(triangulation)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세월호 재난 위기상담에 투입되는 시점에 연구참여자들은 3년에서 20년 사이의 다양한 상담경력을 갖고 있었으며 과거 자살예방 교육을 제외하고는 재난이나 외상관련 전문교육을 받아 본 적이 거의 없는 편이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중·고등학교 위기개입현장에 투입되어 범부처심리지원단이 제공하는 외상, 애도, PTSD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 가며 이를 상담에 적용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보고된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은 재난이나 외상관련 전문가들의 경험과는 다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가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내용분석을 하였지만 개별 상담자의 전문성에 따라 청소년의 외상경험을 상담과정에서 인식하고 면담과정에서 표현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상담경력과의 관련성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재난 위기개입

에 있어서의 상담자의 경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도 상담성과 분석에 의미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재난 위기개입에 투입되어 상담을 시작해 온 시점과 인터뷰를 진행한 시점이 다른데서 오는 연구참여자의 인식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연구참여자들 대부분이 안산지역 거주자였고 같은 지역의 청소년들이 세월호 재난 희생자였기 때문에 상담과정에서 청소년의 외상경험에 대한 인식이 더 컸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안산의 지역적 특성이다. 안산지역의 경우 두 개 학군이 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 학군 내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졸업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서로 알고 지낸다. 세월호 재난을 경험한 단원고가 속해 있는 학군의 학생들이 다른 학군에 비해 외상경험 정도가 심각하고 그에 따른 심리적 어려움을 오랫동안 호소하는 한편 타학군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이유일 수 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단원고가 속해 있는 학군의 학생들은 타학군의 학생들이 세월호 재난에 대해 자신들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며 더욱 큰 거리감과 상처를 받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안산의 지역적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외상경험 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에게 일어나는 긍정적 변화나, 외상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담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세월호 재난으로 친구를 잃고 학교를 자퇴를 했던 청소년이 세월호 재난이 발생하고 1년이 지난 뒤, 스스로 상담센터에 찾

아와 상담을 받고 검정고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 학업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재난 위기상담의 특성 상 전통적인 심리상담처럼 상담이 장기로 진행되지 않고 단기 위기개입 위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담종결 사례들을 연구자들이 면담과정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가 친구를 잃은 청소년의 외상경험의 초기반응 및 증상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기 때문에 후속연구에서는 재난을 경험한 후 적응적으로 대처한 청소년이나 상담이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를 확인하여 외상회복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치는 상담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명확한 외상 후 스트레스 진단 기준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증상을 임상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지는 않았다. 진단기준을 활용하여 외상 후 경험을 측정하고 이를 토대로 외상경험에 관한 개인차 및 집단 간 비교를 통하여 심리적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재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외상을 경험한 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중단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심리지원 방안 마련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가 피해자 가족 및 형제, 자매, 생존자의 외상경험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면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민지, 김광웅 (2008). 사회적 상황에서의 외상경험에 따른 청소년의 사회불안: 또래관계의 중재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6(1),

87-101.

강영훈 (2011). 태풍 ‘나리’로 본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의 심리지원 분석. *탐라문화*, 38, 279-307.

김보경 (2012). 성폭력, 성매매 상담자의 이차적 외상 스트레스와 대리 외상과의 관계에서 외상 신념의 매개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예리 (2002). 비이혼가정 자녀의 이혼지각 및 또래애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종엽 (2014). 이해와 이데올로기 사이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몇 가지 고찰. *경제와 사회*, 104, 344-367.

김지은, 이민규 (2015). 청소년의 외상경험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자기지각 긍정성 수준에 따른 부정적 자동적 사건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129-146.

김현미, 정민선 (2014). 청소년의 외상후 성장 관련 변인 탐색. *교육치료연구*, 6(2), 213-228.

김현미, 정민선 (2015). 청소년의 자기노출, 사회적 지지 및 의도적 반추가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재활심리연구*, 22(1), 11-24.

손승희 (2014). 사회적 사건에 의한 청소년의 간접외상 및 관련요인 연구: 세월호 사건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1(10), 269-294.

송현주 (2010). 재난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 *한국심리치료학회지*, 2(1), 53-62.

신재호, 최경숙, 채정호, 우종민, 지익성, 김정범, 정문용 (2008). 다기관 모집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환자에서 외상의 특성과 신체적 증상과의 관계. *대한불안학회지*,

- 4(1), 34-41.
- 신지영, 이동훈, 이수연, 한운선 (2015). 대학생이 경험하는 외상사건 유형에 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19(2), 69-95.
- 안귀여루 (2001). 성장기에 부모의 배우자 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초기 성인기의 적응.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0(4), 679-695.
- 안현의 (2005).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17-231.
- 오경자, 양윤란 (2003).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1: 행동억제 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3), 557-576.
- 우재희 (2014). 알코올중독자의 가족관계와 자살과의 관계 연구: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3), 365-386.
- 윤명숙, 이재경 (2014). 비행청소년의 외상경험과 음주행동의 관계에 미치는 삶의 만족도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6(1), 155-180.
- 은헌정, 이선미, 김태형 (2001). 일 도시 지역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역학 조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지*, 40(4), 581-591.
- 이동훈, 신지영, 김유진 (2015). 세월호 재난상담에 참여한 여성상담자의 성장에 관한 생애사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0(3), 369-400.
- 이승연 (2007). 학교장면에서의 자살 사후중재. *상담학연구*, 8(1), 161-180.
- 조영주, 최해림 (2001). 부모와의 애착 및 심리적 독립과 성인애착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71-91.
- 조용래 (2012). 한국판 외상 후 인지 검사의 요인구조와 수렴 및 변별타당도: 외상경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치료*, 12(3), 369-391.
- 주혜선, 안현의 (2008). 외상후 위기 체크리스트: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7(1), 235-357.
- 채정호 (2004).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과 병태 생리. *대한정신약물학회지*, 15(1), 14-21.
- 최은영, 안현의 (2011). 여대생의 아동 청소년기 대인간 외상경험과 자기역량 손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6(3), 285-302.
- 최종천 (2012). 뇌체철학에서 양심의 가책. *범한철학*, 66, 88-120.
- 한국경제 (2014. 04. 22). 국민 '트라우마' 확산... 전문가 "사건 생중계 그만둬야".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404221838g>에서 2015, 12, 27 자료 얻음.
- 한태영 (2005). 청소년의 학교장면 스트레스: 성격 및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2, 177-197.
- Allen, J. G. (1995). *Coping with trauma: A guide to self-understanding*. New York: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American Psychiatric Pub.
- Barlow, D. H., Allen, L. B., & Choate, M. L. (2004). Toward a unified treatment for emotional disorders. *Behavior Therapy*, 35(2), 205-230.
- Baschnagel, J. S., Gudmundsdottir, B., Hawk, L. W., & Beck, J. G. (2009). Post-trauma

- symptoms following indirect exposure to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The predictive role of dispositional coping.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3(7), 915-922.
- Bates, K. (2005). *Moderators for secondary traumatic stress in human service professionals: The role of emotional, cognitive and social factors*. doctoral dissertation, Capella University.
- Brewin, C. R., Andrews, B., & Rose, S. (2000). Fear, helplessness, and horror i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vestigating DSM IV Criterion A2 in victims of violent crime.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3(3), 499-509.
- Briere, J., & Runtz, M. (1988). Symptomatology associated with childhood sexual victimization in a nonclinical adult sample. *Child abuse & neglect*, 12(1), 51-59.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England: John Wiley & Sons
- Catherall, D. R. (1999). *Family as a group treatment for PTSD. Group Treatments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hiladelphia, PA: Brunner/Mazel.
- Cho, J., Boyle, M. P., Keum, H., Shevy, M. D., McLeod, D. M., Shah, D. V., & Pan, Z. (2003). Media, terrorism, and emotionality: Emotional differences in media content and public reactions to the September 11th terrorist attack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7(3), 309-327.
- Cohen, J. A. (2003). Treating acute posttraumatic reactions in children and adolescents. *Biological Psychiatry*, 53(9), 827-833.
- Cosgrove, L., Brady, M. E., & Peck, P. (1995). PTSD and the family: Secondary traumatization. *The legacy of Vietnam veterans and their families: Survivors of war: catalysts for change*, 38-49.
- Cogle, J. R., Resnick, H., & Kilpatrick, D. G. (2009). A prospective examination of PTSD symptoms as risk factors for subsequent exposure to potentially traumatic events among wome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18(2), 405.
- Dziuba-Leatherman, J., & Finkelhor, D. (1994). How does receiving information about sexual abuse influence boys' perceptions of their risk?. *Child Abuse & Neglect*, 18(7), 557-568.
- Ehlers, A., & Clark, D. M. (2000). A cognitive model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8(4), 319-345.
- Everstine, D. S., & Everstine, L. (1993). *The trauma response: Treatment for emotional injury*. New York: WW Norton & Co.
- Figley, C. R. (1995). Compassion fatigue as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An overview. In C. R. Figley (Ed.), *Compassion fatigue: Coping with secondary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those who treat the traumatized* (pp. 1-20). New York: Brunner/Mazel.
- Figley, C. R. (2002). Compassion fatigue and the psychotherapist's chronic lack of self car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58, 1433-1441.
- Finkelhor, D. (1984). *Child Sexual Abuse: New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Free Press.
- Foa, E. B., & Rothbaum, B. O. (1998). *Treating the trauma of rape*. New York: Guilford.
- Freedman, S. A., Brandes, D., Peri T & Shalev, A. Y. (1999). Predictors of Chronic Post-

- Traumatic Stress Disorder: A Prospective Study.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74, 353-359.
- Galek, K., Flannelly, K. J., Greene, P. B., & Kudler, T. (2011). Burnout,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social support. *Pastoral Psychology*, 60(5), 633-649.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CA: Jossey-Bass.
- Hathaway, L. M., Boals, A., & Banks, J. B. (2010). PTSD symptoms and dominant emotional response to a traumatic event: an examination of DSM-IV Criterion A2. *Anxiety, Stress & Coping*, 23(1), 119-126.
- Hawks, E., Blumenthal, H., Feldner, M. T., Leen-Feldner, E. W., & Jones, R. (2011).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traumatic event exposure and panic-relevant biological challenge responding among adolescents. *Behavior therapy*, 42(3), 427-438.
- Heath, M. A., Ryan, K., Dean, B., & Bingham, R. (2007). History of school safety and psychological first aid for children. *Brief Treatment and Crisis Intervention*, 7(3), 206.
- Holmes, E. A., Creswell, C., & O'Connor, T. G. (2007). Posttraumatic stress symptoms in London school children following September 11, 2001: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of peri-traumatic reactions and intrusive imagery. *Journal of Behavior Therapy and Experimental Psychiatry*, 38(4), 474-490.
- Hunt, N., & Evans, D. (2004). Predicting traumatic stress using emotional intelligence.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2, 791-798.
- Janoff-Bulman, R. (1991). *Understanding people in terms of their assumptive worlds*. England: Jessica Kingsley
- Janoff-Bulman, R. (1992). Happystance. A review of subjective well-being: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Contemporary Psychology*, 37, 162-163.
- Jenkins, S. R., & Baird, S. (2002). Secondary traumatic stress and vicarious trauma: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5(5), 423-432.
- Katz, C. L., Pellegrino, L., Pandya, A., Ng, A., & DeLisi, L. E. (2002). Research on psychiatric outcomes and interventions subsequent to disaster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sychiatry Research*, 110(3), 201-217.
- Krippendorff, K. (2003). *Content Analysis: An Introduction to Its Methodolog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Inc.
- La Greca, A. M., Silverman, W. K., Vernberg, E. M., & Prinstein, M. J. (1996). Symptoms of posttraumatic stress in children after Hurricane Andrew: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4), 712-723.
- McCormack, L., Hagger, M. S., & Joseph, S. (2010). Vicarious growth in wives of Vietnam veterans: A 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 into decades of "lived" experience.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18.
- Mitchell, A. M., Crane, P. A., & Kim, Y. (2008). Perceived stress in survivors of suicide: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perceived stress scale. *Research in nursing & health*, 31(6), 576-585.

- Moser, J. S., Hajcak, G., Simons, R. F., & Foa, E. B. (2007).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trauma-exposed college students: The role of trauma-related cognitions, gender,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1*(8), 1039-1049.
- Nietzsche, F. (2009). 도덕의 계보 [On Genealogy of Morals, (강태원 역). 서울: 다락원. (원전은 1887에 출판).
- Noppe, I. C., & Noppe, L. D. (2004). Adolescent experiences with death: Letting go of immortality.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6*(2), 146-167.
- Orth, U., Cahill, S. P., Foa, E. B., & Maercker, A. (2008). Anger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n crime victims: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6*(2), 208.
- Pfefferbaum, B., Sconzo, G. M., Flynn, B. W., Kearns, L. J., Doughty, D. E., Gurwitch, R. H., Nixon, S. J., & Nawaz, S. (2003). Case finding and mental health services for children in the aftermath of the Oklahoma City bombing. *The Journal of Behavioral Health Services & Research, 30*(2), 215-227.
- Pynoos, R. S., & Nader, K. (1990). *Children's exposure to violence and traumatic death*. Psychiatric Annals.
- Schlenger, W. E., Caddell, J. M., Ebert, L., Jordan, B. K., Rourke, K. M., Wilson, D., & Kulka, R. A. (2002). Psychological reactions to terrorist attacks: findings from the National Study of Americans' Reactions to September 11. *Jama, 288*(5), 581-588.
- Suomalainen, L., Haravuori, H., Berg, N., Kiviruusu, O., & Marttunen, M. (2011). *A Controlled follow-up study of adolescents exposed to a school shooting -Psychological consequences after four months*. *European Psychiatry, 26*(8), 490-497.
- Suvak, M., Maguen, S., Litz, B. T., Silver, R. C., & Holman, E. A. (2008). Indirect exposure to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does symptom structure resemble PTSD?.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1*(1), 30-39.
- Taylor, S., Asmundson, G. J., & Carleton, R. N. (2006). Simple versus complex PTSD: A cluster 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0*(4), 459-472.
- Terr, L. C. (2003). Childhood traumas: An outline and overview. *Focus, 1*(3), 322-334.
- Terranova, A. M., Boxer, P., & Morris, A. S. (2009). Factors influencing the course of posttraumatic stress following a natural disaster: Children's reactions to Hurricane Katrina.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30*(3), 344-355.
- Van der Kolk, B. A., Roth, S., Pelcovitz, D., Sunday, S., & Spinazzola, J. (2005). Disorders of extreme stress: The empirical foundation of a complex adaptation to trauma. *Journal of traumatic stress, 18*(5), 389-399.
- Vranceanu, A. M., Hobfoll, S. E., & Johnson, R. J. (2007). Child multi-type maltreatment and associated depression and PTSD symptoms: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tress. *Child abuse & neglect, 31*(1), 71-84.
- Waldrop, A. E., Hanson, R. F., Resnick, H. S., Kilpatrick, D. G., Naugle, A. E., & Saunders, B. E. (2007). Risk factors for suicidal behavior among a national sample of adolescents:

- Implications for prevention. *Journal of traumatic stress*, 20(5), 869-879.
- Walling, M. K., O'Hara, M. W., Reiter, R. C., Miburn, A. K., Lilly, G., & Vicent, S. D. (1994). Abuse history and chronic pain in Women: a multivariate analysis of abuse and psychological morbidity. *Obstet Gynecol*, 84, 200-206.
- Wang, X., Gao, L., Zhang, H., Zhao, C., Shen, Y., & Shinfuku, N. (2000). Post earthquake quality of life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Longitudinal evaluation in a rural community sample in northern China. *Psychiatry and clinical neurosciences*, 54(4), 427-433.
- West, M., Rose, M. S., Spreng, S., Sheldon-Keller, A., & Adam, K. (1998). Adolescent attachment questionnaire: A brief assessment of attach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7(5), 661-673.
- 1차원고접수 : 2016. 01. 31.
수정원고접수 : 2016. 03. 20.
최종게재결정 : 2016. 03. 23.

A Qualitative Study on Traumatic Experiences of Adolescents Losing Friends from the Sewol Ferry Disaster Based on Counselors' Reports

Dong Hun Lee

Ji Young Shin

You Jin Kim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qualitatively to explore traumatic experience of adolescents losing their friends from the Sewol ferry disaster, based on counselors' reports participated in crisis counseling and intervention at middle and high schools near Dan-won high school for about 5 - 12 months after the disaster. Interview data were collected by one-time focus group interview and a couple of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by content analysis procedures of Krippendorff(2003). The results were classified by 4 dimensions ('physical', 'psychological', 'cognitive and academic', and 'behavioral and relational' aspects), 13 categories, and 29 meaning content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 Sewol ferry disaster, traumatic experiences, adolescents, loss of friends,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counselor's report